

【현청대로, 니시가와 거리의 교통사회 실험】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의 오모리입니다.

연휴였던 5월 3일과 4일 중심 시가지의 회유성 향상을 목적으로 보행자의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교통 사회 실험을 현청 대로와 니시가와 거리에서 실시하고 저도 4일에 참가했습니다.

전날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내린다고 예보해 지연될지도 몰라 걱정하고 있었습시다만, 다행히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담당자는 아주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

그날은 1시경부터 아내와 함께 이온 몰에서 현청 대로, 니시가와 거리를 돌아 다시 현청대로를 걸어 텐마야, 오모테초 방면으로 갔지만 어느 곳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으로 붐벼, 활기 창출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실시한 약 300m를 보행자 천국으로 한 니시가와 거리에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걱정 없이 놀 수 있었고 행인들도 미소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착 후, 시청 직원과 거기서 우연히 만난 지인과 함께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식사를 나누면서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며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해서 시행되어 서서히 정착 해 나간다면 시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습관을 기르게 되어 건강 증진으로 이어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모임으로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 석 삼 조. 앞으로도 회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